“사망보험금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시도”

여자친구 선물 줄 것처럼 유인 뒤 흉기 휘둘러
“외제차량 할부금 변제 목적이었다” 경찰에 진술

사망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야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19)씨와 B(19)씨 C(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D씨는 가까스로 이들에게서 벗어났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D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D씨를 만났다. 의도적으로 D씨에게 접근한 A씨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산 뒤 4억원에서 5억원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뒤 D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안 A씨는 D씨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5개월이 지난 뒤 범행에 나섰다.

A씨와 D씨는 화순의 한 야산의 팬션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산속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D씨 혼자 걷게했다.

D씨는 밤길이 무서워 다시 팬션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혼자 찾아야 한다며 다시 산속으로 D씨를 가게했다.

D씨는 가까스로 A씨가 이야기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선물은 없었으며 친구와 짜고 기다리고 있던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D씨는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혀 B씨로부터 신체 압박을 당하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을 한 D씨는 또 도망했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 등에 숨어있는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범행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연휴 마지막날, 바쁜 고속도로 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이자 대체공휴일인 11일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목포 북항 계류선박 침수·전복 사고 발생

인명피해·해양오염 없어

목포 북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수·전복됐으나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해양오염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1분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에 계류해 있던 연안복합 1.39t급 선박 A호가 침수 중인 것을 북항파출소 순찰팀이 발견했다.

해경은 파출소 구조팀과 서해특수구조대 잠수요원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선박 A호에 올라 침몰에 대비, 선수와 선미에 홋줄 보강작업 등 응급조치를 했다.

또 잠수요원을 투입해 선박의 침수·전복 원인을 확인했지만 파공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변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선박 A호는 오전 9시55분 육상으로 인양 완료했으며, 사고 당시 선박 내에 승선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조업시기를 맞아 항포구와 해안가에 정박·계류 선박이 늘고 있다”며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여수 앞바다 낚시어선 입항하다 갯바위 충돌

승선원 22명 구조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이 입항 도중 갯바위를 들이받아 해경에 의해 승선원 22명이 구조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여수시 돌산읍 송도 앞바다에서 9t급 낚시어선이 갯바위와 충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히 보내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선장을 비롯한 3명은 거동이 불편했으나 대부분 경상에 그쳤다.

낚시어선은 여수 백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뒤 입항하던 중이었으며, 선원의 졸음 운항에 의한 부주의 사고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주동부소방,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처치 교육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지난 달 28일 오전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이동형 CCTV 탄력적 운영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경찰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이동형 CCTV를 시기별·계절별 탄력적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수확기를 맞아 10. 7, 광양읍 세풍리 일대 농작물 재배지역에 10대를 설치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 기자

순천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경찰학교 운영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5일 제11기 시민 경찰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경찰, 시민 안전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나주시 송월방범대(남대장 함태식, 여대장 최수임) 와 함께 지난 5일 나주 시내 일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민 · 경 합동순찰을 펼쳤다.

기동취재본부